

르네상스예술문화사-13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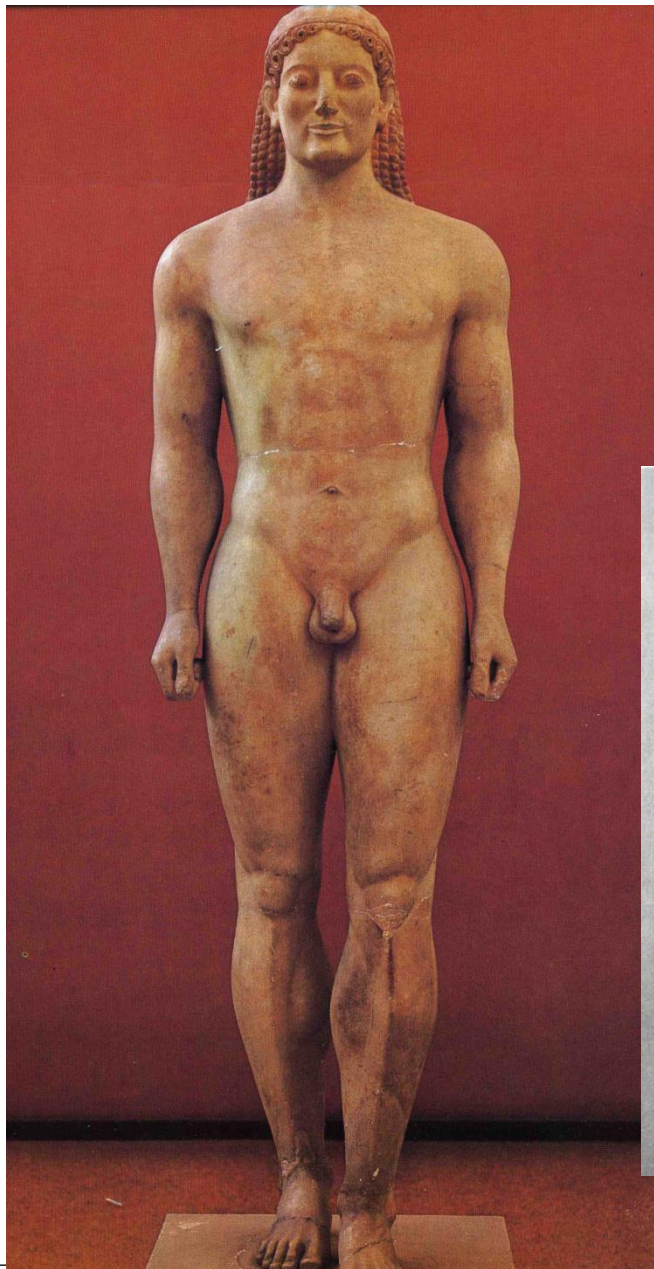
람세스 2세 부부상, 카이로 박물관. BC1250년경

미론, B.C 450년경 . 원반 던지는 사람(Discobolus)
로마시대 모각, 테르메 미술관



아르카익기 조각

아나비소스의 쿠로스, BC530년, 대리석, 아테네국립미술관



코레상, 아크로폴리스 발굴, 120cm, 아크로폴리스미술관



랑팡두상, BC560년, 29cm

클레오비스와 비톤 형제, 대리석
220cm, BC580, 델포이 고고학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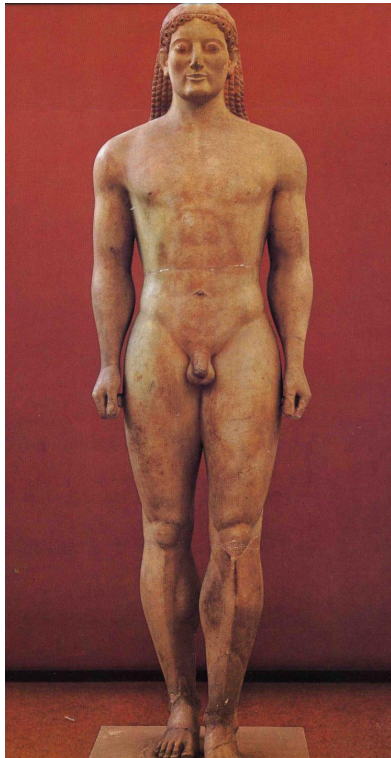
크로티오스 소년, 대리석
BC480, 86cm,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창을 멘 남자(도리포로스), 대리석, 198cm, BC440
폴리클레이토스 원작모작, 나폴리 국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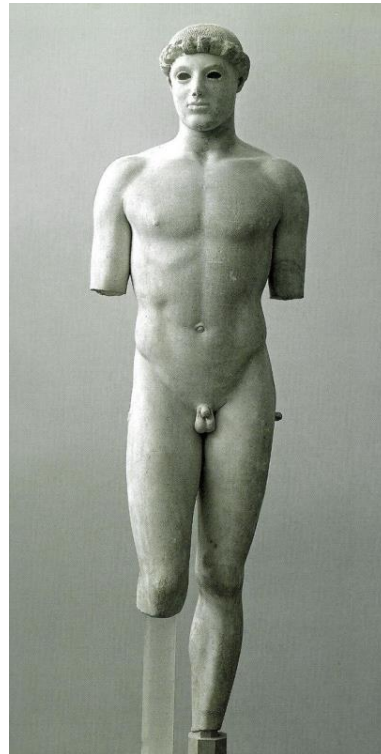
BC600



BC530



BC480





뉴욕쿠로스, BC600년경,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오세르의 여인, 대리석
220cm, BC640-620, 루브르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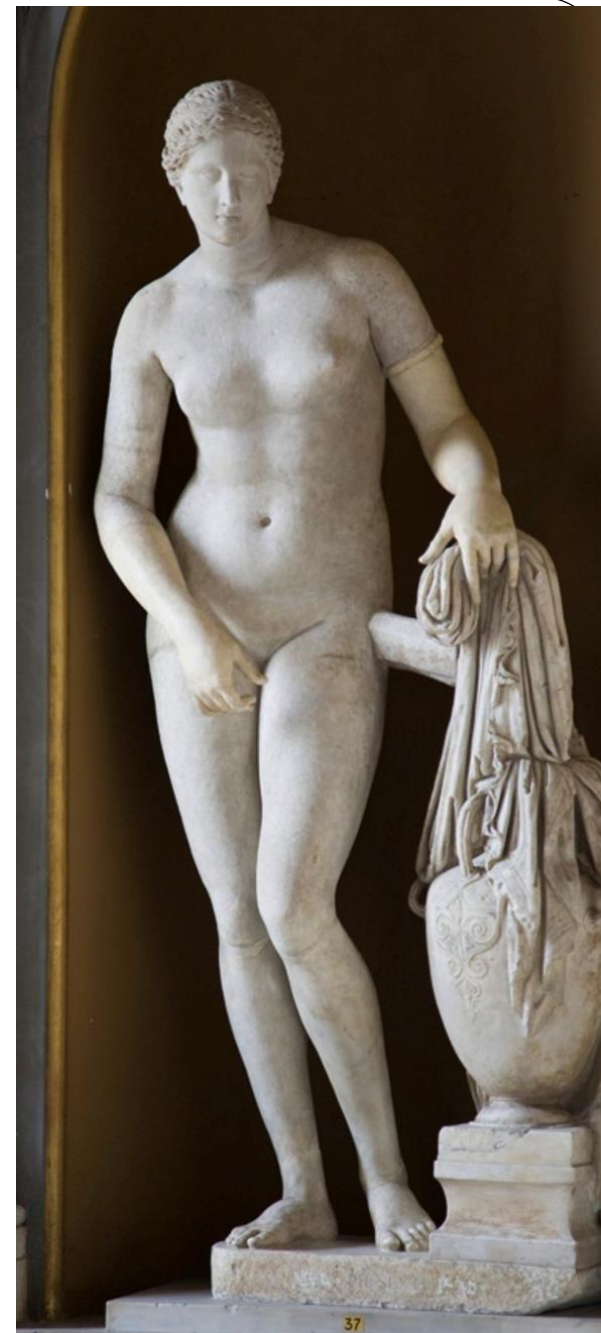
오세르의 여인
BC640-620



페플로스의 코레
BC530



코레
BC490



크니도스의 비너스 BC340

르네상스예술문화사-12

● 2 고전기 미술(BC480-323년)-그리스미술의 전성기

- -인체의 조화미, 이상미, 균형미 완성기, 캐논(canon), 콘트라포스토(Contrapposto) 자세를 통한 **생명감 표현**.
- -이 시기 신의 표현은 그리스 인들에게 신앙의 대상보다, 단지 인간의 숭고한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
- -연극성(제스처적 표현)

● 1)전기 고전기미술 특징(BC480-430년)-파르테논신전(BC448-432년) 완성.

- (1) 인체의 완벽한 전형달성(인체의 황금비-Canon 표현)
- (2) 인간의 숭고한 정신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이상미, 균형미, 조화미-콘트라포스토 표현)
- (3) 대표적 조각가-미론, 폴리클레이토스, 페디아스(숭고양식).

● 2)후기 고전기 미술의 특징(BC 430-323년)

- (1)정신성보다는 감각적인 모습지향.
- (2)숭고한 모습보다는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반영.
- (3)대표 조각가-프락시텔레스(우미양식)

고전기(classic)

인체의 조화미, 이상미, 균형미 완성기

캐논(canon), 콘트라포스토(Contrapposto)

자세를 통한 생명감 표현.

창을 멘 남자(도리포로스), 대리석, 198cm, BC440, 폴리클레이토스 원작모작, 나폴리 국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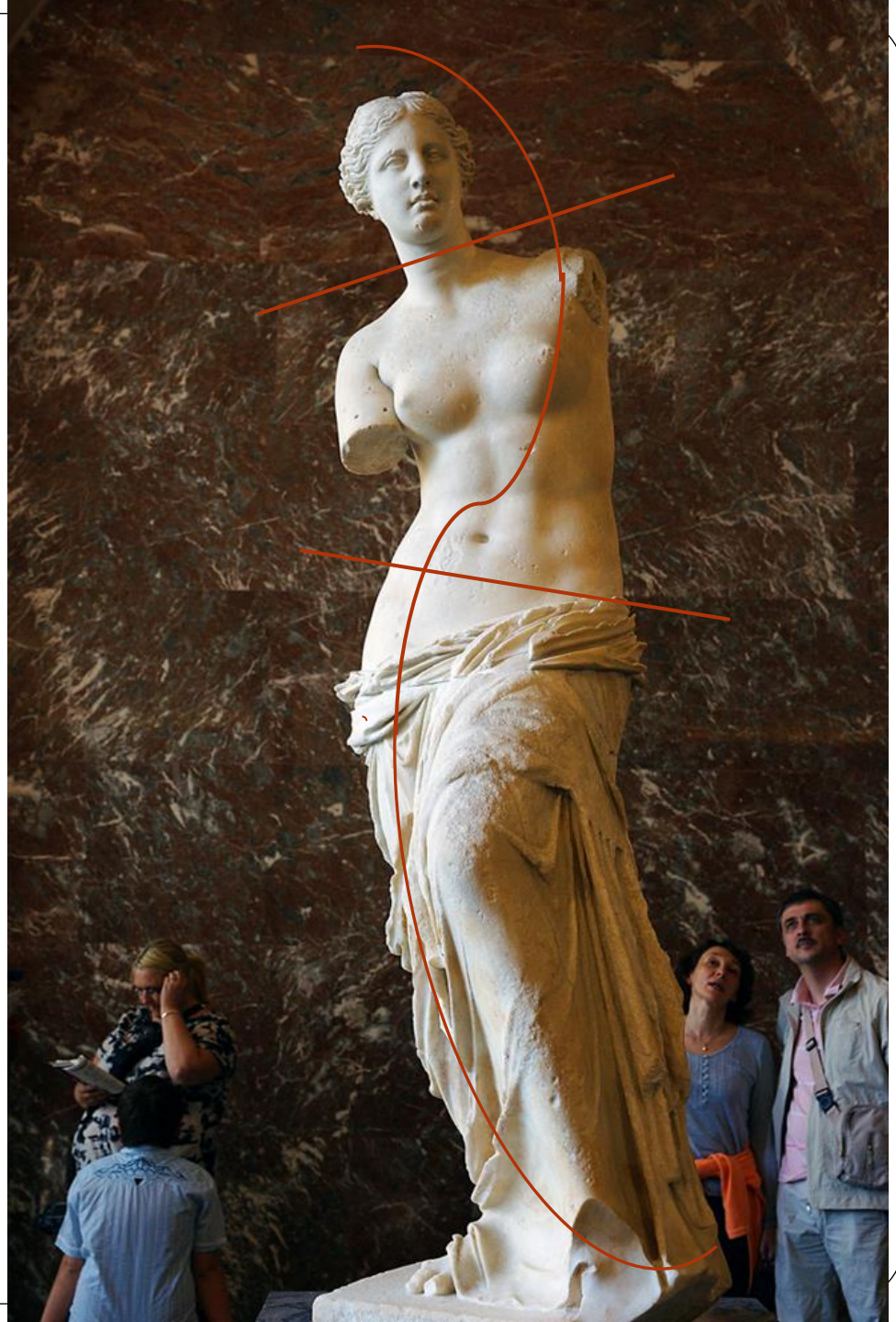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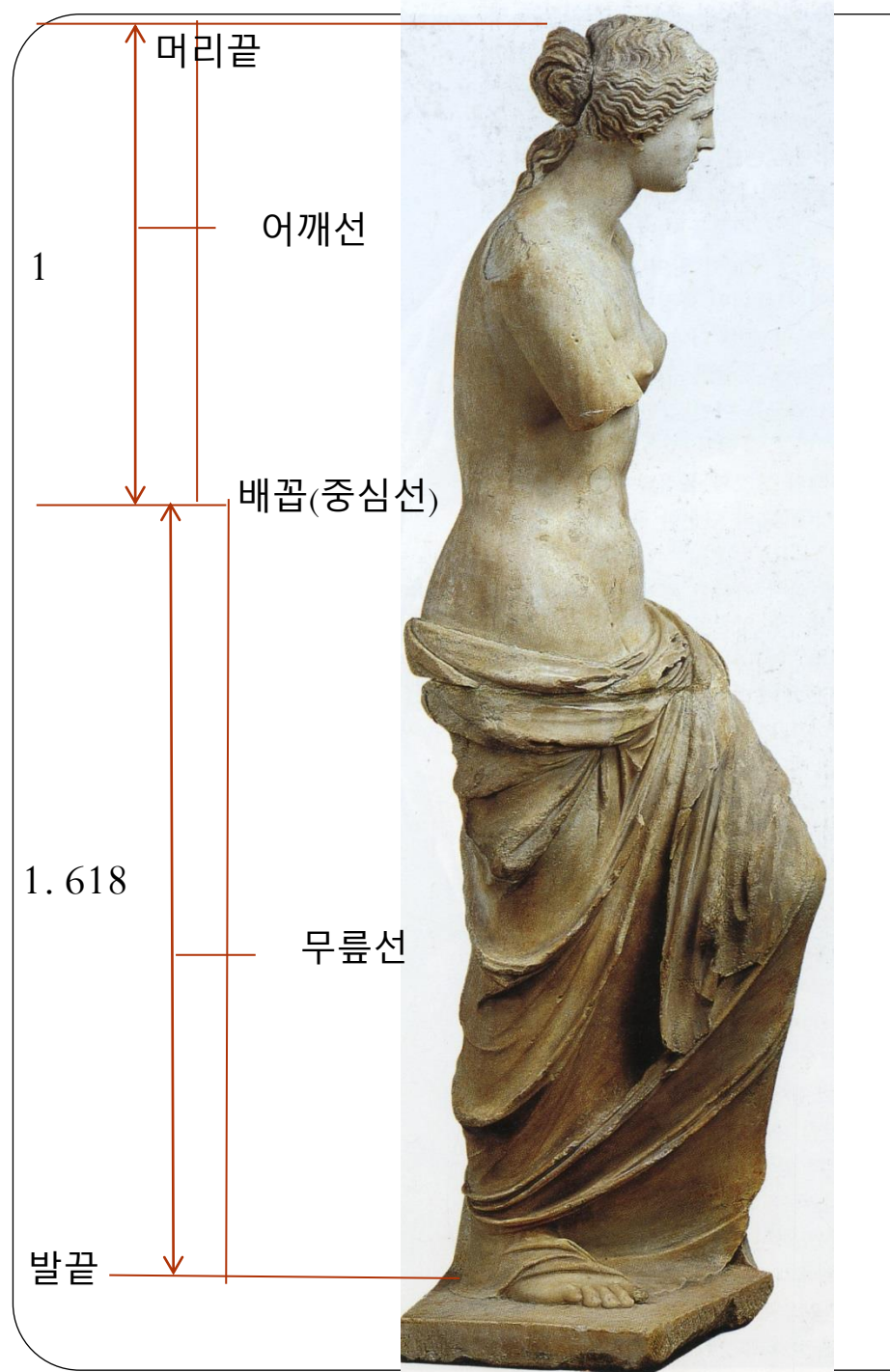
르네상스예술문화사-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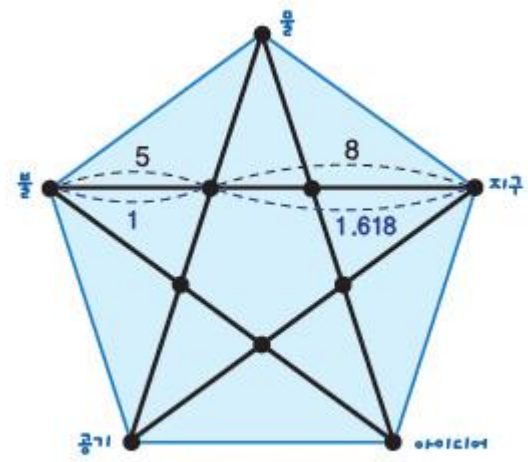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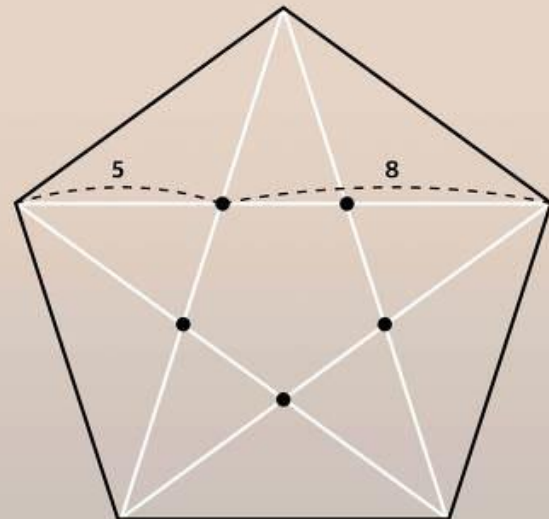
* 황금분할과 황금비율(Golden Ratio)-이상적인 비례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와의 수량적 관계를 비례(proporrtion)라고 하며 비율(ratio)이라고도 한다. 이는 수학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비율이다. 이러한 황금비율을 토대로 면을 나누는 것을 황금분할이라고 한다.

황금분할을 활용할 경우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조화와 안정을 느낄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조화를 가장 중요시 여겼다. 따라서 이러한 황금비율은 다양한 예술품이나 건축물에서 찾을 수 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신전이나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인체비율 등에서 황금비율을 지킨 황금분할의 예시를 보여준다.

황금비율은 수직과 수평의 비례에서 약 1: 1.618의 비율로 표현되는 가장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비율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인체 또한 황금비례를 발견하고 그 비례에 따라 표현했다. 이에 따라 상체와 하체, 각 부분들에 따른 황금비례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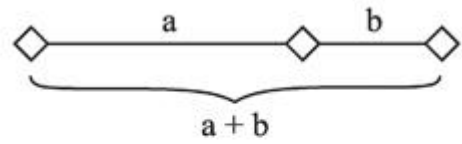


펜타그램에서의 황금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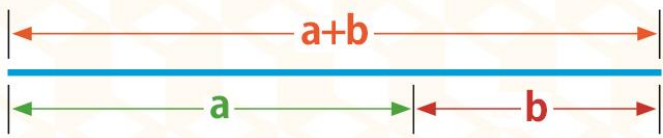
Pythagoras depicted in Raphael's 'The School of Athens'.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정오각형 속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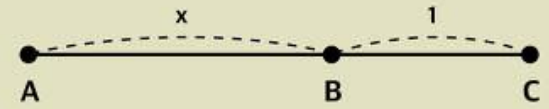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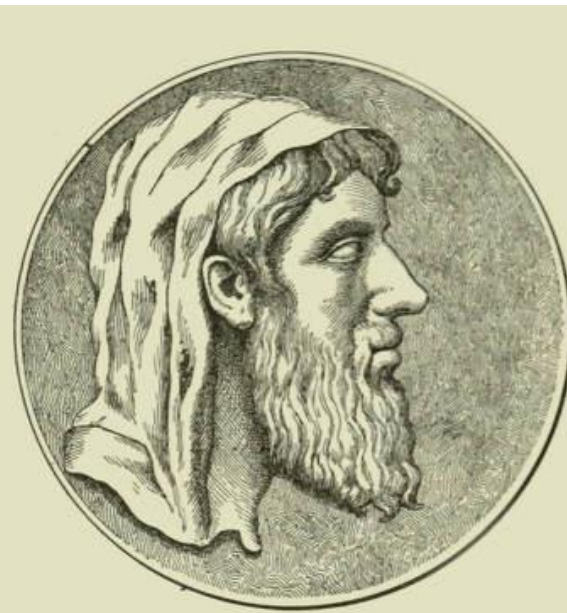
유클리드의 황금비율 도출과정



$$\frac{a+b}{a} = \frac{a}{b}$$



*가장 이상적 비례 - A+B:A = A:B



$$(x+1):x = x:1, x^2 - x - 1 = 0, x = \frac{1+\sqrt{5}}{2} = 1.618033989... (\because x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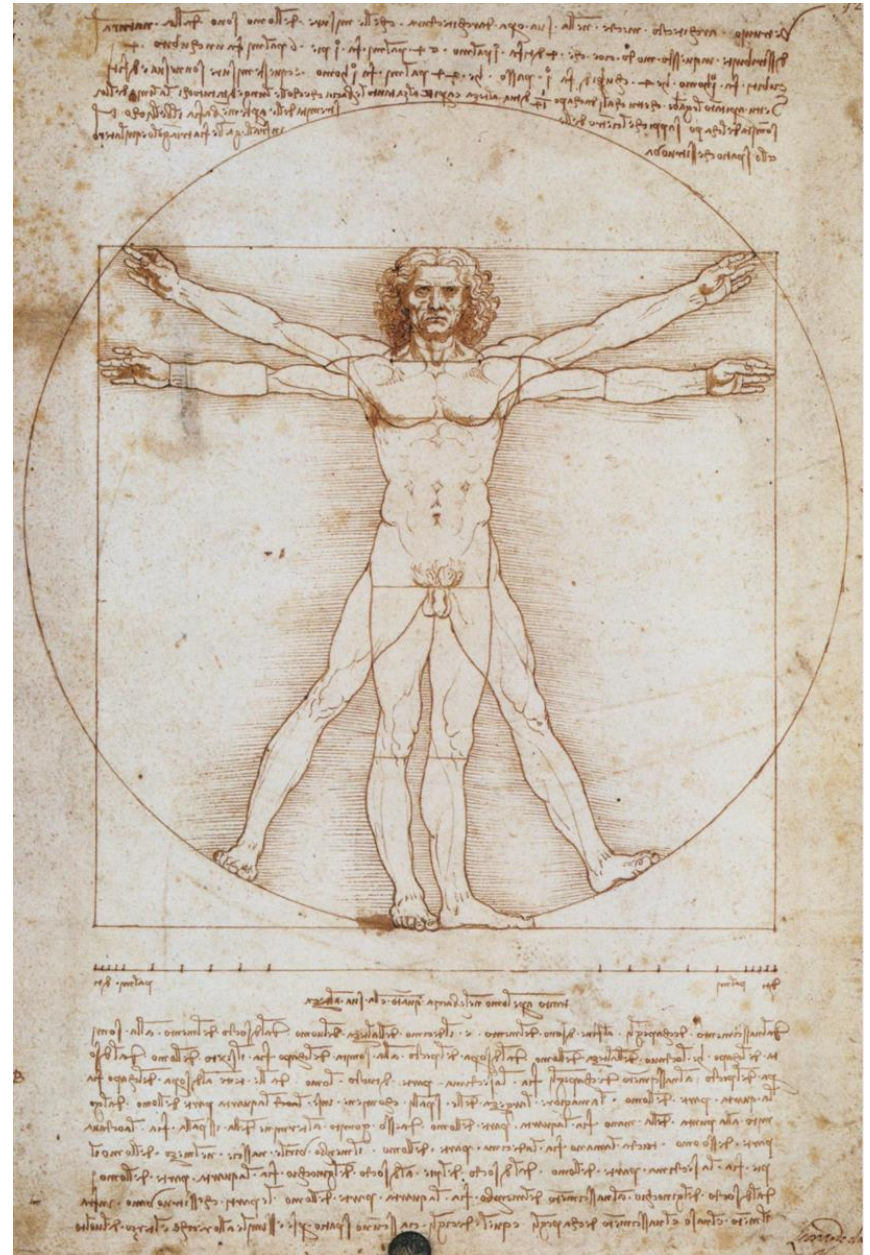
황금분할(이상적인 비례)

그리스에서는 아름다운 인체의 비례를 발견하고 그 비례를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표현했다. 즉 정수리부터 아래턱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전체 인체에 대한 비례를 7등신, 8등신 등으로 나타냈다. 비례는 1: 1.618을 황금비례로 생각했다.

인체의 황금분할(비율)

“자연이 낸 인체의 중심은 배꼽이다. 등을 대고 누워서 팔 다리를 뻗은 다음 컴퍼스 중심을 배꼽에 맞추고 원을 돌리면 두 팔의 손가락 끝과 두 발의 발가락 끝이 원에 붙는다... 정사각형으로도 된다. 사람 키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잴 길이는 두 팔을 가로 벌린 너비와 같기 때문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 비트루비우스 인간(비례), 1490년, 종이에 은필, 펜, 잉크, 수채, 34.4-24.5cm 베네치아 아카데미아미술관

파르테논신전(아크로폴리스)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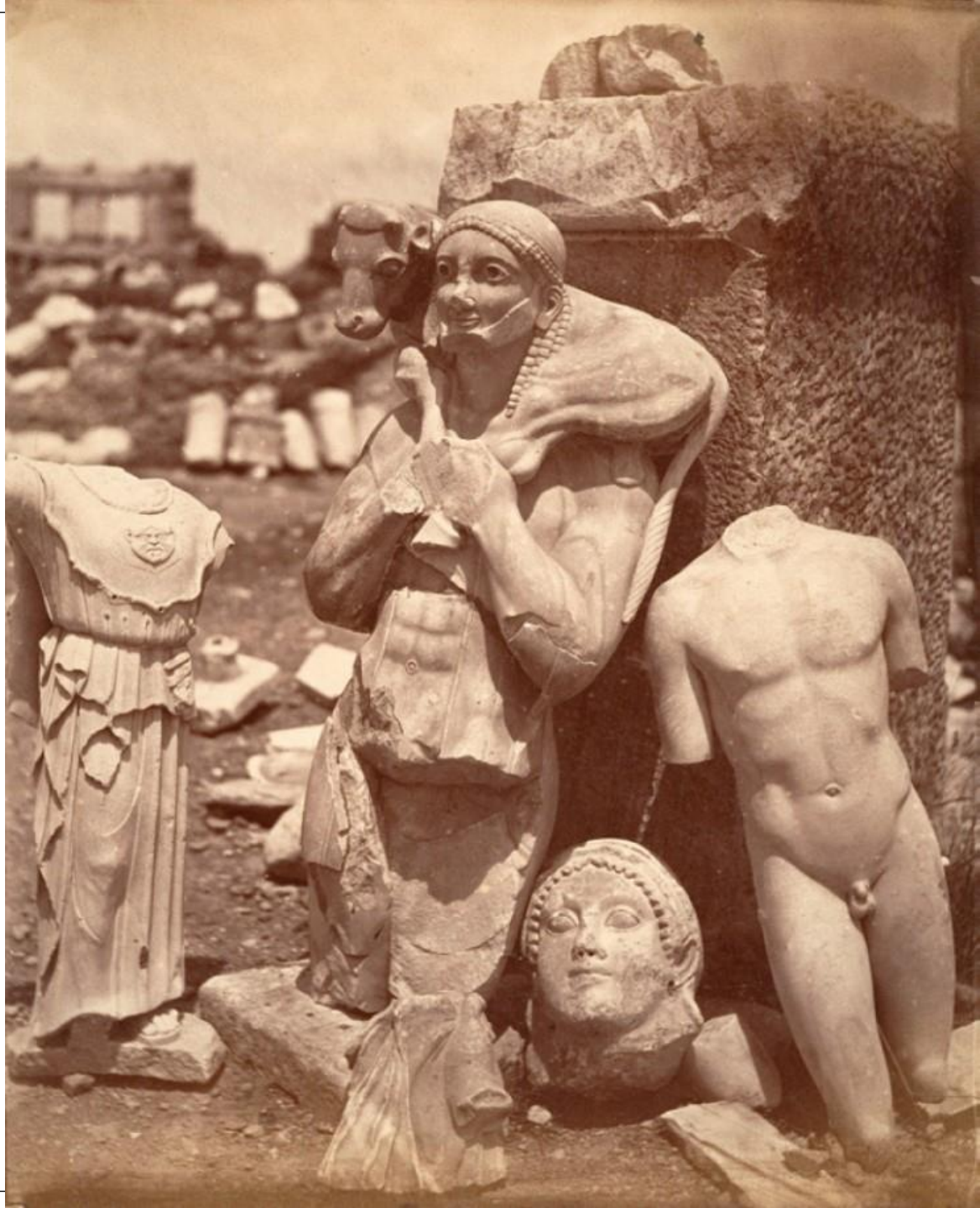
황금비례와 미술





지중해 인근의 유럽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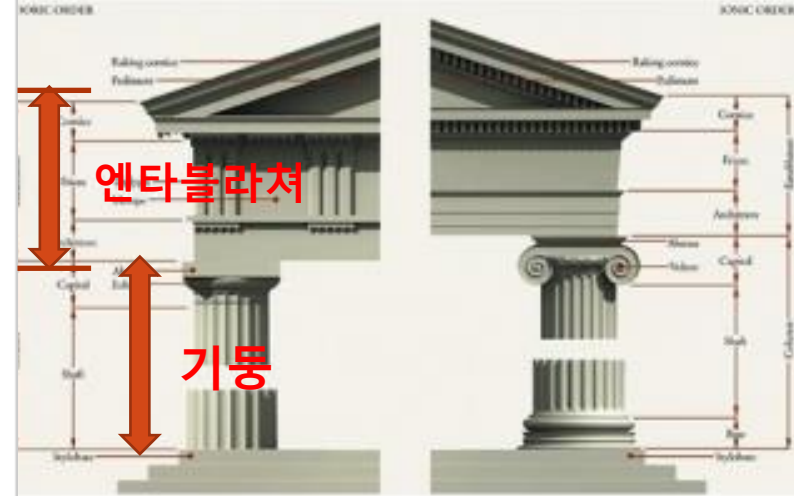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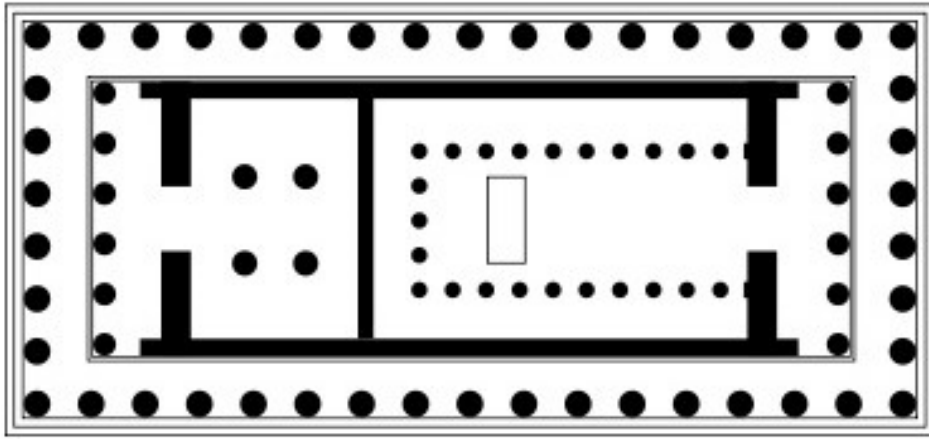
페르시아 침략군이 아크로폴리스를 약탈하고 남기고 간 유물들이 한꺼번에 묻혀있는 것을 고고학팀이 발견했다. 1865년



파르테논 신전



0 5 10 15 20 m



1. 파르테논 신전의 평면도.
2. 기둥(column) 위의 부분을 엔타블라처(entablature)라 하며, 그곳에 주요한 조각이 다 들어있다.
3. 외벽 기둥(46개) 내벽 기둥(2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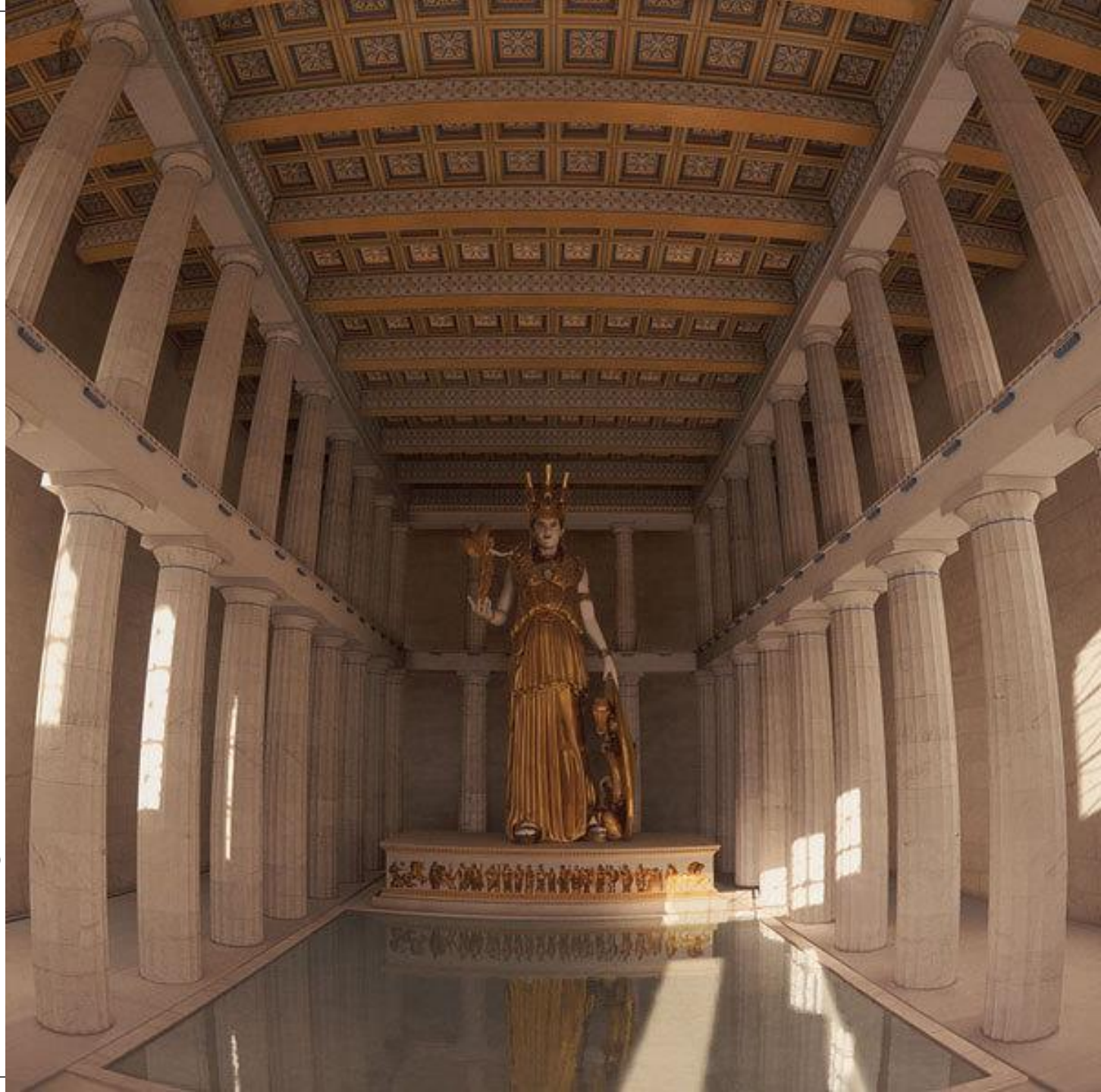


파르테논 신전 내부(상상도) -높이12m 아테나상

바르바케이온의 아테나, BC200-250
로마시대 복제, 아테나 국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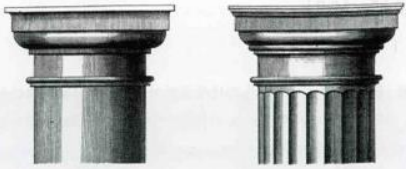


파르테논 신전 내부(상상도)
이 12m 아테나상



파르테논신전(서쪽전경). BC 479년에 페르시아인이 파괴한 옛 신전으로 도리스식 신전. 페디아스, 익티누스, 칼리크라테스, BC 448-432,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그리스신전건축의 기본구조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트 양식

